

'94 월간양계 10대 뉴스

— 편집부 —

여름폭염 양계업 강타, 경쟁력 약화초래

금년 여름 중 7, 8월의 기온이 35°C를 웃돌아 닭의 폐사율이 높았고 산란을 저하 및 증체가 정체되는 바람에 양계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산물출하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에대한 정확한 피해액은 계산하기 어려우나 7월중 피해는 중계가 폐사 5%, 산란 및 수정을 저하 20%, 산란계가 폐사 4%, 산란저하 13%, 육계가 폐사 10%, 성장지연 18%, 질병 3% 각각 나타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생산성 저하가 약 40% 가까이 발생하여 병아리로부터 계란과 닭고기에 이르기까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계란이 86원(특란, 서울)으로 전년 대비 23%가 높아졌고, 닭고기는 2,200원으로 38%가 상승하였고, 육용계 병아리는 620원으로 38% 상승, 산란계는 800원으로 14%가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가금티푸스 발병급증

양계농가들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질병발생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균성 질병의 감염율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점은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금티푸스는 수년간 발생건수가 없다가 지난 '92년부터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추백리와 원인체가 같아 혼동될 우려가 높으나 일령에 차이가 없이 발병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예방이 최선책이며 감염이 되면 치료방법이 없다시피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미원마니커(주) 천호인티 인수

'93년 10월에 부도를 내어 양계업계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던 천호인티그레이션(주)가 4개월 동안 공전을 거듭하다가 급기야 미원이 지난 2월에 전격 인수하여 미원마니커(주)로 법인을 설립하고 육계 계열화사업에 돌입하였다.

미원마니커의 천호인수는 국산계 보호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었으며, 육계산업의 선두주자로 역할을 해온 비중을 감안할 때 그 조치는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현재 미원마니커는 천호가 시행했던 전 분야의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내실을 다지는 작업을 계속하여 육계산업 안

정확에 기틀을 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R 협상후 양계산물 수입개방 일정발표

'93년 12월 15일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여 UR협상은 오랜 줄다리기를 거듭한 끝에 일괄 타결이 되었다.

양계인들의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양계산물의 수입개방이 UR협상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방 폭이 확대된다.

UR협상내용(양계산물)

구분 품목	닭 고 기		계란(전란액)		종 계		
	쿼 터 (톤)	관 세 (%)	쿼 터 (톤)	관세 (%)	MMA,CMA 수입량	추가할당 관세적용량	관세 (%)
1993	미절단,신선	20		30	(천수)	(천수)	
1994	절단,신선	20		46.3			
1995	7,700	20	10,709.5	45.8	461	319	10
		(초과분35)				350	
1996	10,400	20	12,576.5	45.4	461		
		(초과분32.75)				382	
1997	6,500	20	13,444.2	44.9	461		매년
	(11.1-6.30)	(초과분30.5)				407	감축
	7.1 자유화						
1998	완전개방	30.5	14,311.6	44.4	461		
1999	"		15,179.0	44.0	461	433	
2000	"	매년	16,046.4	43.5	461	460	
2001	"	감축	16,913.7	43.0	461	478	
2002	"		17,781.1	42.5	461	497	
2003	"		18,648.5	42.1	461	516	
2004	"	20	19,515.8	41.6	461	536	9

피해가 커지면서 종란생산이 일시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종란생산이 약 30~40%의 생산량 감소와 폐사율이 높아 육계농가의 병아리 요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아리가 생산되자 닭고기 값이 폭등하여 정부는 긴급히 닭고기 수입대신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는 종란을 수입하여 닭고기 수급을 안정시킨다는 정부 방침이 마련되어 (주)하림이 9월부터 약 800여만개에 달하는 종란을 유럽에서 처음으로 수입하여 부화된 병아리를 계약사육 농가에 공급하여 닭고기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사업 추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내산이 상대적으로 값어치가 하락하다가 농축산물에 있어서는 우수한 품질로 인정을 받아오고 있다.

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래종이 자취를 감추고 외국계를 중심으로 상업적 가치만을 추구하여 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향후 수입개방을 앞두고 재래종 닭을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닭고기를 공급키 위해 본회는 정부로부터 약 7억5천여만원의 연구비 전액을 지원받아 재래종닭의 순수혈통을 보존하고 경제성이 있는 품종개발을 위해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러 각계와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육용 실용계용 종란 첫 수입

금년 여름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되어 종계에

생산자 난가고시 현실화 조치

매일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고 있는

계란은 어느 특정 기관에서 산지출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생산자와 상인들이 의견을 교환하여 출하가를 흥정하게 된다. 수급조절이 제대로 안 되어 차질이 생기면 생산자와 상인간에는 우선 자기의 몫을 키우기 위해 있는 방법이 다 동원되어 신용이 무너지게 된다. 생산자 난가고시는 그간 여러차례 방법을 달리하여 운용해 왔으나 때마다 불평이 잦았다.

업계 전반적으로 수급조절까지 염두하는 조절위원, 차후야 어쨌든 오늘 계란값을 생각하는 생산자들이 난가고시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지난 5월 25일 시장흐름에 맞게 생산자 난가고시를 현실화 시키지는데 합의하고 이행에 들어 갔으나 거래시 아직도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양계업 등록기준 상향조정

정부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제고를 위해 종돈·계업 등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양계업 등록기준은 산란계업이 3만수 이상, 육계업이 1만수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각각 5만수로 상향조정하였다.

종계는 1천수 이상, 산란계용 중병아리 1만수 이상은 종전과 같으며 농가당 면세 사육규모는 1만수 이하이다.

이는 5만수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전업화로 인식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 빠른 시일내에 5만수 이하 농가는 비과세해야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절단신선·냉장닭고기수입개방

축산물의 수입개방화 조치에 따라 닭고기의 수입개방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절단된 신선·냉장 닭고기가 '94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되었다.

절단신선육의 수입개방은 미절단보다 수입 가능성이 높게 예측이 되었으나 국립동물검역소의 검역 실적내용을 보면 정식 통관된 닭고기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금년처럼 값이 폭등하였을 때에도 수입이 되지 않아 신선·냉장육의 수입은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다만 냉동육의 수입개방이 시작되는 '95년 1월 1일부터는 국내가격에 따라 수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심스런 예상을 하고 있어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기계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입개방의 확대로 생산비를 인하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인식하에 범 축산인들은 사료 및 축산기계, 동물약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이중 정부가 지난 6월 14일 국내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제고를 위해 축산기계의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키로 함에따라 이와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중에 있다. 법개정이 승인되면 관련규정을 정리하여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으나 품목분류와 아울러 정확한 시행시기는 언제가 될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